

專門圖書館의 主題目錄形態에 관한 一研究

유 소 영*

<目 次>

- | | |
|-------------------------------------|---------------------------------|
| I. 序 論 | 3. 主題名標目表의 問題 |
| II. 主題目錄의 構造形成에 影響을 미
치는 韓國의 諸要素 | III. 우리나라 專門圖書館의 主題目錄
의 實態分析 |
| 1. 學問道具로서의 言語의 多樣性 | IV. 分類目錄과 目錄의 機械化 |
| 2. 圖書館學教育의 背景 | V. 結 論 |

I. 序 論

東西洋을 막론하고 원래의 전통적인 主題接近方法은 分類目錄이었다. 分類目錄은 目錄의 藏書點檢機能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식을 크게 大分하여 놓고 이 大分된 그룹을 단위로 장서를 점검한 데서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藏書點檢이 결과적으로 지식의 組織的 順序에 따라 하게 되었으며 또 지식을 분류한 순서에 따라 기입을 조직적으로 배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유럽대륙과 영국에서 지금까지 圖書館目錄(또는 主題書誌)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¹⁾

東洋의 전통적 目錄은 中國을 비롯하여 대체로 四分法에 의거하여 資料를 分類, 排列하는 分類目錄體制였을 뿐 아니라 서구의 近代目錄學이 수입된 후에도 대체로 分類目錄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目錄은²⁾ 물론 日本目錄

*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講師

1) Hanson, E.R. and Darly J.E. "Catalogs and Cataloging."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 ed. by Allen Kent and others. New York: Marcel Dekker, 1970 p.246.

2) 1982년 7월 필자가 조사한 무작위샘플 조사의 분석결과는 분류목록을 채택하고 있는 전 문도서관은 주제명목록을 채택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의 약 4배였다.

도 分類目錄이 주된 주제목록형태로서 山下 榮씨는 “열람용으로 書架日錄을 작성하여 分類目錄에 대응하고 있는”³⁾ 사례를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이 主題目錄으로 分類目錄을 사용하고 있다.⁴⁾ 兩國語 및 多國語資料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에서 분류목록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 도서관이 숫적으로 미국 다음가는 소련에서도 主題名目錄에 대한 제창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통적으로 분류목록이 보편적인 주제 목록이며 부분적으로 주제명표목표에 해당하는 리스트들이 있기는 해도 1962년까지 主題名標目表가 출판되지 않았다.⁵⁾

South Africa에서는 이용자들이 여러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도 분류목록이 일반화되었으며 특수도서관에서는 물론 목록의 체계적인 배열 때문에 분류목록을 채택하고 있다.⁶⁾

영국을 비롯한 유럽대륙의 도서관들의 주제목록이 미국에서 수입된 주제명목록을 사용하는 곳도 있으나 主流가 되는 것은 분류목록체제라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특히 독일에서는 분류를 원칙적으로 목록기입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인식하며 서가에 배열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이차적인 기능으로 여기고 있다.⁷⁾

이에 반하여 主題名目錄은 훨씬후 19세기 말엽에 미국에서 출현한 것으로 C.A. Cutter의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가 출판된 1876년 이후 미국에서 보편화 되기 시작하였고 후에는 미국 외의 타 지역에도 소개되었다. 1876년 이전에도 물론 유럽에서는 자모순 주제목록이 있었으나 이것은 보통

3) 山下 榮 “件名目錄開運論” 圖書館界. Vol.23, No.4 (1971.11) p.132.

4) Siew, Kee Yeh and Choo, Chang Soh. “Cataloging the multi-languag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Library, Singapore.” *International cataloging*. Vol.1, No.2(April-June, 1972) p.7.

5) Slamecka, Vladimir. “The development of subject Catalog in the U.S.S.R.”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6, No.3 (Summer, 1962) p.258-259.

6) Kennedy R.F. *Classified catalog: a practical guide*. [South Africa?]: Balkema, 1966. p.4.

7) Stevenson, Gordon. “The Eppelsheimer subject catalog.”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15, No.3 (Summer, 1971) p.309.

책의 표제에서 선정한 주요단어를 색인하는데 그쳤으며⁸⁾ 이것은 당시의 분류목록에 主題索引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분류목록의 미비점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 하려는 시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북미에서는 분류목록이 거의 전적으로 추방되고 말았으나 1960년대 까지도 많은 논란속에서 분류목록을 채용하고 있었던 도서관들이 있었으니 1962년 조사된 바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지역에서 13개 도서관이 분류목록을 채용하고 있었다고 한다.⁹⁾ 1970년대에 와서는 기계를 이용한 도서관조직망이 보편화되면서 대표적인 분류목록채용 도서관들이 속속 주제명목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72년에 Boston University Library가, 분류목록을 중지하였고¹⁰⁾ 1974년에는 The National Library of Canada가, 1975년에는 Laurentian University Library가 각각 分類目錄의 계속적인 유지를 중지하고 주제명목록체제로 바꾸었다.¹¹⁾

그 이유는 分類目錄에 最新性を 유지하기 위하여 分類目錄索引을 그 도서관 단독으로 작성하는 것이 OCLC나 Ontario University Libraries Cooperative Systems Cataloguing Support System에 가입하는 것보다 비경제적이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건의 분류목록 색인을 새로 작성하려면 거의 일주일이 걸리며 기왕의 목록카드에 삽입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에서 삼주간이 걸리기 때문에¹²⁾ 이용자에게 대한 봉사는 기계화되어 즉시로 해결이 가능한 도서관 협력체제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느릴 뿐 아니라 경비도 많이 든다는 것이다. Boston University Library의 예로는 “열명의 목록자가 일주일에서 52시간씩을 주제목록에 소비하며 한 시간에 평균 25내지 30件¹³⁾ 밖에 주제

8) Hunter, Eric J. *Cataloguing, a guidebook*. Hamden: Linnet Books, 1975. p.44.

9) ALA.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Divisio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Section. Classification Committee, Classified catalog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6, No.3 (Summer, 1962) p.274-275.

10) Hazen, M.H. “The closing of the classified catalog at Boston University.”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18, No.3 (Summer, 1974) p.220-225.

11) Mount, J.E. “Demise of a classified catalogue: victim of progres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23, No.4 (Fall, 1979) p.422-425.

12) Mount, J.E. (1979) p.423.

13) Hazen, M.H. (1974) p.224.

처리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主題名目錄을 사용하는 대규모 도서관 협력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이므로 '넓은 바다에 외딴 섬'으로 인식되었을 것임은 물론 기제를 사용하는 도서관협력체제에 가입하는 것 보다 문헌봉사의 속도가 느리게 되었을 것은 정한 이치이다. 뿐 아니라 이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서관협력체제에 가입했을 때 표준화에 따라야 하는 압력이 가중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론은 분류목록의 장점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더우기 목록에서 영어와 불어의 두 가지 접근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언어가 통용되는 사회에 봉사하는 캐나다의 도서관으로서의 分類目錄의 중단이 매우 아쉬운 결단이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이 主題名目錄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북아메리카에서 발전하였고타 지역에서는 분류목록이 여전히 우세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學問分野가 그렇듯이 圖書館學도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발달시키고 있으므로 그들이 기왕에 발전시킨 主題名目錄에 대한 研究는 훨씬 활발하여 (1970년 대 이후 미국에서는 分類目錄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주제명목록의 칭호도 classed calalog 혹은 classified catalog에 대비시켜 일컫는 alphabetical subject catalog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subject catalog라고만 하면 의례히 alphabetical subject catalog를 의미하게끔 되었다.) 이러한 美國의 圖書館學을 수입하는 여타지역의 국가에서는 美國 圖書館學의 영향을 입게 마련이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美國 圖書館들의 主題名目錄이 우리나라 圖書館 특히 專門圖書館들에서 받아들여 지는 예를 보게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主題目錄으로 채택되는 사례가 많은 主題名標目表는 영어로 표기된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實情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世界的인 書誌統整에 부응하는 의미에서도 무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立場에서는 우선 받아들여 目錄體制를 세우기 전에 兩目錄이 우리의 實情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되는지 또 汎國家的 次元에서 國家書誌作成의 측면에서는 어떤지, 世界書誌統整의 관점에서는 어느 目錄形態가 더 合理的인지를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本稿에서 우리나라 圖書館, 특히 專門圖書館들의 主題目錄이 근래

에 들어서 分類目錄에서 主題名目錄으로 전환해 가는 실례를 보면서 우리나라 圖書館이 처한 위치 즉 우리나라 目錄의 傳統, 言語的인 問題, 圖書館人 敎育의 背景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專門圖書館 主題目錄이 分類目錄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명하고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의 專門 圖書館에서 채택하고 있는 主題目錄의 形態 및 그 問題點을 조사분석하고 연구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보다 완전한 主題接近을 할 수 있는 目錄의 形態가 어떤 것인가 구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論旨을 전개함에 있어서 다음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圖書館의 主題 目錄이 分類目錄의 形態로 자연적으로 귀결하게 된 韓國的인 諸 要素를 分析하고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專門圖書館에 있어서의 主題目錄의 실태를 調査分析하고 Ⅳ장에서는 國家書誌道具로서의 主題目錄의 作成 및 圖書館資料의 機械檢索이라고 하는 당면한 과제와 本稿에서 주장하는 分類目錄의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主題目錄의 構造形成에 영향을 미치는 韓國的 諸要素

1. 學問道具로서의 言語의 多樣性

지구상에 있는 여러 국가민족들은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研究는 예외가 있기는 해도 대체로 자기 나라 말로 세상에 발표한다. 이렇게 생산되는 研究文獻들에 대하여 主題로 接近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목록으로는 어떤 형태의 것이 적합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은 이미 분명하게 되었다. 즉 記號의 포괄성이 言語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言語를 表記의 매개체로 삼는 主題名目錄보다 記號를 表記의 매개체로 삼는 分類目錄이 더 적합한 목록인 것이다. 그리고 外國의 선진문화를 주로 수입하는 입장에 있는 나라의 도서관에서는 기호와 언어의 포괄성에 대해 남다른 음미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 그것은 한 민족의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生活과 思考의 범주내에서 발달하는 것이므로 그 國家民族의 文化 이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작성하는 目錄은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대상자로 전제하는 목록이다. 그러므로 목록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쉽게 파악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전달매체는 主題名目錄을 채택한다면, 우선 한글이다. 그러나 先進學問을 우리가 수입하는 경우 그 學問의 內容은 그 학문을 발달시킨 국민의 언어로 가장 먼저 탄생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한글로는 概念의 표현어가 없거나 여러가지 새로운 新造語들이 사용되어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정한 낱말이 굳어지기까지는 어느 한가지를 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학문 全分野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체로 종교가 발달한 민족의 언어는 종교적인 내용을 구사하는데 알맞으며 철학을 발달시킨 민족의 언어는 철학용어가 크게 발달하여 철학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특히 1950년대 이후 확실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學問研究에 있어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꼭 영어로된 자료만을 도구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문헌의 언어별 분포는 매우 다양한 것이다.¹⁴⁾¹⁵⁾ 우리가 제 삼국의 입장에서 선진한 문화를 영어로 되어 있거나 불어로 또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거나 관계하지 않고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主題目錄의 올림말을 言語로 한다면 이와같은 다양한 언어로 되어있는 내용을 어느 언어로 표기하여 우리나라의 목록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또 어느 한 외국어가, 예를 들어 英語가 대체로의 학문내용을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목록의 이용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통달성이 없는 외국어이므로 주제명목록의 올림말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화여자대학교의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에 의해 작성한 영어자료의 주제명목록이 크게 이용되지 못

14) 구 자영 “한국화학자의 연구정보원 : 인용연구”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제 6집 (1975)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975. p.119-121.

15) 정필모 “研究圖書館의 藏書構成에 관한 考察” 중앙대학교 논문집. Vol.11(1966) 서울 : 중앙대학교' 1966. p.157.

하는 것으로 조사된 예¹⁶⁾는 주제명목록의 올림말로 외국어를 사용하면 실패할 확율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같은 언어의 한계성은 일반적으로 아라비아숫자와/나 로마자의 기본 자모로 이루어지는 分類記號를 목록의 배열기준으로 삼으므로써 철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분류기호를 배열기준으로 하는 분류목록은 비단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나라 언어로 된 外國文獻을 많이 다루는 도서관에서 효용도가 지배적일 뿐 아니라, 일상통용어가 여러 언어인 나라들의 도서관에서도 選好하는 목록형태가 되고 있다.

요약하면 目錄에 記述하려는 자료들이 여러종류의 언어로 되어있을때, 또 목록의 이용자들이 多國語使用者들로 구성되어 있을때 分類目錄은 더욱 유효하다. 분류목록은 채택하는 나라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 혹은 두 가지 요소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주로 첫째 요소 때문에 분류목록을 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도서관들에서 영어로 된 주제명목록이 사용될 때는 이 두가지 점은 문제되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을 쓰더라도 우리에게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미국은 영어를 국어로 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대부분의 學問分野의 발전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미국중심으로 발전하는 학문내용을 영어를 사용하여 目錄을 작성하는데 우선 불편이 덜 할 것이고 이용자측에서도 역시 母國語로 된 목록이용은 外國語로된 목록을 이용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專門圖書館들은 分類目錄體制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점은 거개가 문화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으면서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지 않거나 모국어와 영어 혹은 기타의 언어를 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2. 圖書館學教育의 背景

우리나라의 도서관학교육은 그 근간을 人文科學에 두고 있다. 최초의 대

16) 朴 濇子 圖書館目錄利用에 관한 研究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열람목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12. p.52.

학과정인 연세대학의 圖書館學科가 文理科大學내의 人文系列로 설립되었고 그 뒤에 이화여자대학교의 圖書館學科 역시 마찬가지였다. 근래에 와서는 社會科學系列에 신설되는 대학과정의 도서관학과도 있으나 교과내용면에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대학의 교수진을 보아도 國文學, 英文學 등 人文系統의 學問背景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教育機關에서 양성되는 사서들도 이들의 영향권 내에서 육성된다. 또 대학원의 석사과정도 대체로 대학과정의 도서관학과 출신을 비롯한 인문계열의 주제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진학한다. 이렇게 배출된 사서들이 圖書館現場에 임했을 때 개개의 專門圖書館에서 요구하는 사서의 자질과 圖書館學教育을 통하여 쌓은 사서의 자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外國語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분야의 주제적인 안목이 그렇다. 특히 세계적으로 自然科學分野의 연구가 월등히 많으므로 이 방면의 문헌이 풍부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科學技術을 바탕으로 하는 產業育成을 국가의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자연히 이 방면의 자료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도서관 자료의 적지 않은 부분이 자연과학계열의 자료일 때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自然科學을 연구하는 利用者들에게 주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그 역할을 훌륭히 해 낸다면 그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월등히 노력한 사서개인의 공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圖書館教育의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며 누차에 걸쳐서 지적되는 동시에 매우 합리적인 개선책도 제시된바 있다.^{17) 18) 19)} 우리는 이러한 개선책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도서관학교육이 大學院중심으로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나 현재에 걸쳐서 또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도 우리나라 사서들이 처한 여건은 비단 위에서 예로 든 自然科學分野만이 아니라 점차

17) 김 세익 “世界的 趨勢에서 본 韓國圖書館學의 一側面에 대한 論考” 圖書館學. 제 1집 (1970) 서울: 한국도서관학회, 1970. p.130-132.

18) 李 淳子 “特殊司書의 養成과 우리나라의 圖書館學 教育科程” 도서관. Vol.33, No.4 (1978, 5) p.38-42.

19) 정 필모 “도서관학 4년제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서관 Vol.27, No.2 (1972.2) p.10. 정 필모 “韓國의 圖書館學. 教育: 1972年度의 回顧와 反省” 도철월보 Vol.13, No.12 (1972.12) p.13-14.

로 전문화 세분화 되는 學問의 諸 領域에서 각 분야의 研究者, 專門家들과 그들이 전공하는 주제분야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주제를 안내 할 수 있는 즉 주제명 표목표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분류표에 의거하여 자료를 分類하는 일도 이에 준하는 사서의 할일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작업을 이종으로 함으로써 잘못 매겨질 수 있는 목록기입의 숫자를 늘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도서관학은 圖書館現場의 실제의 상황을 바탕으로 논의 된 것을 전제하는 학문이다. 우리나라의 圖書館學이 우리의 현실과 유리되어 다른 나라의 현실이나 사정에서 생겨난 結果를 우리의 것으로 직수입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전문도서관 목록의 주제안내를 위해서 主題名目錄을 채택하는 것은 도서관학교육제도의 측면에서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3. 主題名標目表의 문제

우리나라의 學問發達の 諸 現象은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말로 된 주제명표목표나 디소러스를 개발해 내기 힘들게 되어 있다. 國語國文學, 國史學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學問分野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概念에 대한 우리말 용어가 普遍妥當성이 인정되어 사용이 굳어지기까지는 어떤 特定用語를 主題名標目表나 디소러스에 확정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편찬한 과학용어대사전을 예로 들더라도 이 사전에서 채택한 용어가 사실상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무수히 많은 사실은 主題名標目表 生産의 어려움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또 다른 沮害要素는 主題名標目表나 디소러스의 作成이 圖書館學과 語學을 포함하여 學問諸分野에 걸쳐서 協同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이다.

1960년 Robert Burgess는 우리나라에서의 分類目錄의 유망성을 예견하면서 韓國에서는 지금까지 主題名標目表를 발달시킬만한 요소가 통용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²⁰⁾ 主題名標目表의 開發에 대한 전망은 그후 22년이 지난

20) 버제스, 와버트, “한국도서관에 있어서의 분류목록” 분류목록, 와버트 버제스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조지 피바디 대학 1960. p.2.

오늘도 기대할 만한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재철 주제명표목표가 출판된 것은 1961년이였다. 그 이후로는 최근년에 들어와서 몇몇 專門圖書館에서 자체기관의 자료를 電算處理하기 위한 목적으로 KEDI 디소러스(한국교육개발원), IR 디소러스(중앙일보사) 등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디소러스들은 물론 자체기관의 資料整理라는 제한된 목적에서 출발하였고 디소러스 개발을 위한 분명한 支援이 人力面에서 또 經濟面에서 확보되어 있는 환경에서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생각할 때 보이는 장래에 全學問分野의 모든 자료를 조직하는 道具로서 완벽한 主題名標目表는 生産되기 힘든 전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主題名目錄을 발달시킨 美國은 主題名標目表가 그 전제조건으로 발달하였다. 美國圖書館들에서 표준적인 主題名標目表로 쓰이고 있는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와 *Sears List of Subject Headings*의 來歷은 바로 그들의 主題名標目表 發展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는 미국도서관학의 발생시기였던 19세기 말에 그 제작을 시작하여 1909년에 초판을 낸 것이다.²¹⁾ 이 Subject Heading은 그후 꾸준히 개정되어 현재 제9판(1980)이 나왔고 계속해서 季刊으로 追錄이 출판되고 있고 매년 때로는 每二年마다 累積版을 내고 있다. 또 1923年 Minnie Earl Sears에 의해 초판이 나온 *Sears List of Subject Headings*도 主題名目錄의 道具로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 1977년 제11판을 낸 이 Subject Headings는 Sears 이후 반세기 이상을 거치는 동안 편집자도 여러사람이 대물리어 바뀌어 오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여러가지 특수분야의 主題案內를 위한 主題名標目表, 디소러스들이 생산되었다. 그뿐 만이 아니라 世界的으로 이용되는 유명한 抄錄誌, 索引誌들의 主題索引을 발달시킨 것은 모두 主題名目錄의 發展에 공헌하는 요소들이었다. 미국의 主題名目錄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主題名標目表의 開發과 發展을 뒷받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1) chan, Lois Mai.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Hill, 1981. p.137.

主題名目錄의 채택은 主題名標目表의 사용을 전제하는 目錄形式이다. 主題名標目表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主題名目錄을 택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다른 나라말로 된 主題名標目表를 대용으로 쓴다면 그것은 물대신 기름으로 밥을 짓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主題名標目表의 결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專門圖書館은 分類目錄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Ⅲ. 우리나라 研究圖書館의 主題目錄의 實態分析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각 要素들은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이 主題目錄으로 分類目錄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因果的인 현상은 실제의 우리나라 도서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는 1982년 7월 6—7양일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한 ‘한국목록규칙개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필자가 실시한 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표 1, 2, 3 참조)

이 조사는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에서 分類目錄과 主題名目錄을 어느 정도의 比率로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두 目錄形式의 채택경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목록의 형태가 어느 정도 완벽성을 기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이에서 주제목록의 目的과 機能을 충분히 발휘하는 목록으로서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앞으로의 分類目錄作成에 참고가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조사는 전국 도서관의 분류, 목록을 담당하는 사서들에게 실시한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표집되었으므로 피조사도서관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분포되었으며 설문에 응하여 집계된 대학 및 특수도서관은 47개관이 었다. 이것은 1979년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특수및 대학도서관의 총 숫자 342의²²⁾ 7.3%에 해당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7개관중에서 分類目錄을 사용하는 도서관이 33개관, 70%, 主題名目錄은 6개관 13%이다. 西洋書 자료만 주제명목록으

2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동협회, 1979. p.7.

로 작성하는 곳도 있고 西洋書, 東洋書 모두 주제명목록을 작성하는 곳도 있으나 어느편이든지 分類目錄과 主題目錄을 병행, 작성하는 도서관은 8개관 17%나 된다. 山下 榮은 分類目錄을 作成하는 외에 또 主題名目錄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바 있다.²³⁾ 미국의 도서관들에서는 主題案內를 위한 목록으로 主題名目錄을 쓰면서 分類目錄과 비슷한 書架目錄 한벌을 복제하여 열람용으로 비치하는 수가 있다고 하나²⁴⁾ 완전한 체계의 두 가지 주제목록을 병용하는 곳은 없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두가지 主題目錄을 병용하는 예가 많은 것은 어느 형태의 것도 완벽한 主題目錄이 못되기 때문에 利用率이 저조하여 두 가지 형태의 주제목록을 병용시키므로써 이용자의 文獻調査效果를 높이고자 한 데 그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연구도서관의 주제목록형태

도서관수 목록형태	대 학		특 수		합 계	
	대	학	특	수	합	계
분 류 목 록	24	73	9	64.4	33	70
분 류 목 록 과 주 제 명 목 록	7	21	1	7	8	17
주 제 명 목 록	2	6	4	28.6	6	13
합 계	33	100	14	100	47	100

〈표 2〉 분류체계의 안내 방법

도서관수	안내방법		대 강 의 분 류 구 분 시 체 계		이용지도	
	색	인	대	강 의 분 류 구 분 시 체 계	이	용 지 도
대 학(31)	8	19	30	97	11	35
특 수(10)	0	0	9	90	2	20
합 계(41)	8	19	39	94	13	28

표 2의 통계는 일반이용자들에게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를 알려주는 방법에 관한 통계로서 분류목록을 작성하는 총 41개 도서관 중 분류목록 이용의 열쇄가 되는 分類目錄索引을 구비한 도서관은 불과 8개관 19%에 불과하였다. 이 사실은 分類目錄의 이용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며 분류목록의

23) 山下 榮 (1971) p.132.

24) Hanson, E.R. and Darly, J.E. (1970) p.281.

〈표 3〉 사용되고 있는 주제명표목표와 주제명목록의 시작연도

주제명표목표 및 시작연도		이재철표	L.C.C.	기 타	69년 전	70~74	75~79	80~82
대 학		1	6	—	3	1	2	3
특 수		3	3	1	1	1	1	2
합 계		4	9	1	4	2	3	5

이용율저하는 主題名目錄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主題名目錄을 새로 시작했거나 분류목록을 중단하고 主題名目錄으로 전환한 도서관 사서들이 상당수 분류목록이 활발히 이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分類目錄의 利用率이 낮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원인도 작용을 하겠으나 이용을 안내하는 색인이 미비할 때 당연히 이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은 索引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分類目錄과 본래부터 목록구조에 결함 때문에 이용이 활발 할 수가 없게 만들어진 主題名目錄을 병용시키는 문제다. 이 경우는 두가지 형태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時間과 經費의 낭비가 될 뿐 이용자에게는 철저한 주제안내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分類目錄만을 대강의 류, 강, 등의 분류의 큰 구분만을 표로 제시하거나 배열된 목록카드 중간에 안내카드를 삽입하는데 그치지 말고 보다 자세하게 색인을 冊子型으로든 카드형으로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분류목록을 사용하는 41개 도서관중 거의 전부가 분류표의 대강의 큰 구분만을 제시한다고 대답하고 단체 혹은 개인으로 이용지도를 한다는 도서관이 13개관, 28%였다(표 2 참조).

대강의 류, 강에 해당하는 분류구분을 표로 제시하거나 이용지도를 통한 방법은 分類目錄의 索引을 해 주면서 병행할 수 있는 것이지 表로 제시하거나 이용지도를 분류목록안내의 주된 방법으로 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방법이다.

主題名目錄을 채택하고 있는 專門圖書館에서는 專門圖書館用으로 쓰일 수 있는 국어본 주제명표목표가 미비한 관계로 L.C.C.를 사용하는 곳이 9個館이나 되며 이재철 주제명표목표를 사용하는 곳이 4개관, 기타 특수 주제명

표목표가 1개관으로 이재철 주제명표목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특수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표 3 참조)

특히 主題名目錄을 1980년에 시작한 도서관이 5個館에 해당하여 조사된 14개관 중 1/3이상이 근래에 주제명목록으로 전환하거나 분류목록과의 병행을 시작하였다. 이 점은 本稿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專門圖書館들이 사용한 主題目錄의 形態를 선정함에 있어서 分類目錄의 主題檢索道具로서의 우수성과 主題名目錄의 不合理性을 재고하고 재인식할 것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또 비례로 보아 주제명목록을 대학도서관 보다 특수도서관에서 더 많이 채용하는 경향은 미국에서 분류목록이 특수도서관들에서 주로 관심이 되었던 것²⁵⁾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전문도서관들이 사용하는 主題目錄에 관하여 본 조사에서 발견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의 전문도서관은 分類目錄을 2/3이상이 사용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이 처한 여건이 主題目錄으로서 분류목록을 쓰도록 유도한 것이며 근대적 개념의 도서관이 수입되기 전부터의 전통에 영향을 입은 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분류목록의 利用의 열쇠인 색인을 19%만이 해주고 있다. 앞으로 分類目錄을 계속유지하고 利用率을 높이는 방법으로 같은 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들이 제휴하여 분류목록의 索引集을 공동으로 발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류목록의 색인보급과 경비절약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③ 주제명목록을 1980년대 이후에 시작한 도서관이 5개관, 주제명목록을 쓰는 전체 도서관의 1/3이상으로 이것은 매우 경제할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 주제명목록을 작성하다가 중단했거나 분류목록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대체로 주제명목록은 主題에 관해서 행하는 二重作業이라는 것이 첫째 이유고 주제명을 바르게 메기지 못하면 주제명을 내주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 이유들은 이미 지

25) Hanson, E.R. and Darly, J.E. (1970) p.281.

적되었듯이 모두 근거가 있는 경험의 소산이라고 본다.

또 分類目錄을 중단하고 주제명목록으로 대체 했거나 새로 시작한 도서관에서는 주로 분류목록의 이용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은 분류목록의 索引作成이 매우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치로서 색인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N. 分類目錄과 目錄의 機械化

필자는 지금까지 분류목록의 검색수단으로서의 우수성과 한국도서관의 진통과 현실에 비추어 분류목록이 보다 적합한 주제안내의 방법임을 설명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分類目錄이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目錄의 機械化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검토하고자 한다.

이 검토는 물론 分類目錄의 機械化와 主題名目錄의 機械化의 對比檢討가 될것으로 각 목록의 入力의 문제점과 出力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比較하고자 한다.

우선 어떠한 자료이건 기계화라고 하면 입력데이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도서관 주제목록의 입력데이터를 주제명목록으로 할 것인가 분류목록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들의 대부분이 分類目錄으로 일관해 왔으며 이들 개개의 도서관들은 앞으로도 이체제를 고수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도서관들은 主題案内方法을 분류목록의 형태로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도서관 목록기계화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할 것이다. 그 첫째 문제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와 앞으로 수입하는 자료에 주제명을 주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우리말로 된 적절한 주제명표목표가 없으므로 이제부터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셋째는 한글의 언어습성과 구조에서 오는 機械化의 어려운 문제점들이다. 이상 세가지 문제들은 어느 하나도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첫째와 둘째 문제는 서로 연관지어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 세번째의 한글의 言語習慣과 構造에서 생기는 入力資料의 變換問題는 정영미 교수와 현규섭 사서관도 KOR MARC 開發의 問題點에서 지적하

고 있듯이 우리말은 英語와 달리 助詞를 사용하는 附着語이며 동사, 형용사 등 어미변화가 심할 뿐 아니라 외래어 표기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²⁶⁾ 띄어쓰기가 혼란상태이므로 생기는 問題點, 또 言語習慣에 漢字를 혼용하기 때문에 더욱 더 큰 애로사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問題들은 미국사람들이 英語를 올림말로 사용하여 겪고 있는 問題들에 추가로 가중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圖書館目錄을 主題名目錄으로 주도하지 않고 分類目錄으로 한다면 主題의 올림말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분류목록에서는 主題의 入力과 檢索의 道具가 言語가 아닌 分類記號이므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분류기호를 주제표시로 삼기 때문에 주제명표목표가 필요없고 또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서관이 분류목록을 쓰고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나 앞으로 수입할 자료에 주제명을 부여함이 없이 그대로 기계화에 임할 수가 있다. 물론 각 도서관이 사용하는 분류표가 다르다거나 目錄記述에 標準化가 되어 있지 않다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런 것은 主題名을 새로 매겨 주어야 하는 것에 비례되지 않는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입력자료의 변환문제도 분류기호는 언어로 표기되는 개개의 낱말과는 달리 기계가 읽고 처리하는데 알맞는 단순성, 획일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해결된다.

대신 分類目錄에서는 어떤 특정주제는 어떤 분류기호로 표시하기로 약속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색인이 필요한데 이 索引은 主題名目錄의 올림말과 같이 특정문헌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고 分類記號를 안내해 주는 것이므로 소장된 문헌의 수보다 적은 수의 索引語만이 필요하다. 分類目錄에 있어서 索引은 기계에 入力되었거나 冊子型의 印刷資料로 이용하거나 다같이 主題名目錄에서 디스커스 혹은 主題名標目表를 통해서 디스크 컴퓨터나 올림말로 채택된 낱말을 확인한 연후에 檢索을 시도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主題名目錄에서와 같이 추가되는 부담은 아닌 것이다.

26) 정 영미, 현 구성 “國立中央圖書館 資料管理의 電算化研究” 圖書館學. 제 8 집 (1981) 서울: 한국도서관학회, 1981. p.69-70.

다음으로는 目錄이 機械化되었을 때 利用者에게 제공되는 出力情報가 目錄의 목적과 목록이 구비해야할 조건을 어느 정도로 만족시켜 주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므로써 두 종류의 주제목록을 비교해 보자.

첫째로 정보가 제공되는 형식에 있어서 두 가지 목록을 비교하면 主題名 目錄의 형태로 기계화된 목록에서는 出力情報를 받는데 있어서 手動檢索에 서와는 달리 多面接近 (Multi Access)이 가능하므로 이용자는 그가 원하는 主題에 관한 문헌의 리스트를 CRT 상에서 보거나 프린된 리스트로 받는다. 즉 機械의 힘을 빌리므로써 主題名 目錄을 手動檢索할 때 자모순배열 상에 출 어진 같은 주제에 관한 문헌을 이리 저리 들추어 찾아야했던 번거로움을 제 거하게 되는 것이다. 分類 目錄의 형태로 入力된 목록에서도 같은 이용자 봉 사를 받게 된다. 즉 이용자는 원하는 주제에 관한 문헌리스트를 읽기만 하 면 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받아보는 출력정보의 내용에 있어서는 두 목록이 다르다. 主題名 目錄의 형식에서는 機械가 인식하는 한계가 글자의 모양과 자 리수에 국한되기 때문에 모양과 자리수가 같지만 하다면 내용에 관계 없이 기계적으로 선택하여 출력시키는 단점을 갖는다. 디스크 컴퓨터로 검색된 정보 시스템들의 출력자료들에 전혀 관계 없는 문헌이 다수 들어있는 것은 이 때 문이다. 기계의 이러한 획일적이고 단순한 作業性格에 보다 잘 맞추어줄 수 있는 것은 분류목록의 체제이다. 왜냐하면 記號는 모양과 자리수의 변화의 폭이 작으며 또 同義語나 同形異義語, 글귀의 前後관계 (Context)에서 내용 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즉 같은 모양, 같은 자리수의 기호는 언제나 같은 주제내용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획일적인 기계의 작업으 로도 우리가 시도하는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까닭이다.

主題名 目錄體制를 택할 때는 기계의 識別力이 획일적이고 단순한데 반하여 검색되는 데이터의 構造는 구체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복잡하므로 검색은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필요없는 문헌을 출력 시키기도 하고 필요한 문헌을 누락시키기도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헌검색에서 검색효율 에 대한 논란이 항존하는 것은²⁷⁾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檢索效率이 높은 분류목록의 형태를 택하는 것이 目錄의 目的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 入力時에 데이터 변환의 문제에 있어서나 出力資料에 대한 機械使用料 면에서도 낭비가 없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分類記號에 의한 문헌의 기계검색은 이미 1961년부터 시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²⁷⁾ 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ngetraut Dahlberg는 1976년 발표한 Major Development in classification에서 U.D.C.의 機械化를 중심으로 主題檢索을 위한 分類記號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²⁸⁾ 있으며 그후에도 R. Fugmann과 J.H. Winter 팀의 계속적인 연구에 이어³⁰⁾ W.B. Croft의 分類에 의한 情報檢索 理論과 實驗結果의 발표³¹⁾ 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헌의 주제검색을 言語를 통해서 시도할 생각을 중단하고, 일례를 들면 독일에서 개발된 主題目錄의 방식같이 분류기호 내지는 분류기호와 낱말을 병행, 사용하여 분류기호만으로 細分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研究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國家書誌統整의 문제는 여러나라 언어로 되어있는 매우 방대한 서지의 통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연히 기계화를 전제하는 것이고 機械化는 主題名目錄의 올림말이나 디스크립터로서는 전망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사실상 “IFLA가 시도한 世界書誌統整은 主題데이터가 분류시스템의 記號의 형식으로 주어질 때에 全世界의 문헌을 통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主題名이나 디스크립터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主題名이나 디스크립터를 사용한다면 통용되는 모든 言語의 사전이 컴퓨터에 수록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²⁾

27) 윤 구호 “情報檢索效率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제 8집 (1981) 서울: 한국도서관학회, 1981. p.74-94.

28) Rigby, M. “standardization for classification in computerized documentation system.” *classification Research*, ed. by P. Atherton. Copenhagen: Munksgaard, 1965. p.524-539 (Dahlberg, Ingetraut. “Major developments in classificatio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6.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p.78에서 재인용)

29) Dahlberg, I. (1976) p.76-78.

30) Fugmann, R. and Winter, J.H. “Reverse retrieval: toward analogy inferences by mechanized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Vol.6, No.2(1979) p.85-91.

31) Croft, W.B. “A model of cluster searching based on classification” *Information System*, Vol.5, No.3 (1980) p.189-195.

32) Dahlberg, I. (1976) p.78.

V. 結 論

본 논고는 우리나라 專門圖書館에 적합한 主題目錄의 形態를 문헌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구명하고 여기서 구명된 적합한 형태의 목록이 실제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에서 어느 정도로 채택, 사용되고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分析, 評價하여 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전문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절하게 봉사하는 主題目錄形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分類目錄은 理論的으로 主題名目錄보다 檢索上의 문제를 적게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使用分布도 북미대륙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여러나라의 도서관들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또 주제목록으로서 分類目錄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나라 專門圖書館의 여건에 비추어 당연한 선택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채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전국의 圖書館組織網構築을 전제로 하는 目錄의 機械化를 위해서도 또 國際情報交換의 互換性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와같이 分類目錄이 主題名目錄에 비하여 主題目錄으로서 보다 적절한 形態의 目錄이라는 결론은 分類目錄이 한 주제와 다른 주제와의 관계를 分類體系內에 유지시켜 줌으로써 研究者들의 망라적인 主題調査에 기여하는 반면 主題名目錄은 전체 자모순배열 속에 흩어 놓이므로써 한 주제와 다른 주제간의 관계를 유지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갖는 까닭이다. 그 대신 主題名目錄은 소수의 적합한 참고자료를 즉시적으로 선택하는데 유효한 목록으로 대중적이고 실용적일 것을 주장하는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가 대학도서관 혹은 연구소도서관 등 專門圖書館의 機能이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의 그것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할 때 專門圖書館의 主題目錄은 즉시적인 實用性을 추구하기 보다 신중하고 망라적인 文獻調査의 道具로 쓰임에 적당한 分類目錄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미국의 한 圖書館學者는 “目錄利用者의 習慣이 目錄形態에 대한 意見上의 不一致를 없애는 결정적인 證據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불행하게

도 美國의 目錄은 어떠한 體制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험되지 않은 가정하에서 오래동안 축적되어 왔다. 목록이용자들의 習慣을 설명하려고 시행한 시도가 있었던 것은 최근 몇년 사이였을 뿐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증거라고 하는 것도 論爭을 증지시키고 최종적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제한된 자료들인것 같다.”³³⁾ 고 슬회함으로써 미국도서관들은 이미 잘못 내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主題名目錄을 채택하는 도서관이 많지 않으며 圖書館協力體制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지금 선택을 바르게 한다면 위에 인용된 내용의 후회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구 자영 “한국화학자의 연구정보원 : 인용연구”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제 6 집 (1975)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975. p.110-131.
2. 김 세익 “世界的 趨勢에서 본 韓國圖書館學의 一側面에 대한 論考” 圖書館學. 제 1집 (1970) 서울 : 한국도서관학회, 1970. p.103-132.
3. 노 옥순 “도서관목록의 이용에 관한 연구와 목록의 내용” 圖書館學. 제 7 집 (1980) 서울 : 한국도서관학회, 1980. p.69-88.
4. 박 온자. 圖書館目錄利用에 관한 研究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열람목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12. 70p.
5. 버제스, 콰버트 “한국도서관 에 있어서의 분류목록” 분류목록. 콰버트 버제스 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존지피바디대학. 1960. 48p.
6. 山下 榮. “件名目錄開運論” 圖書館界. Vol.23, No.4 (1971. 11) p.131-143.
7. 윤 구호. “情報檢索效率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제 8 집 (1981) 서울 : 한국도서관학회, 1981. p.73-101.
8. 이 순자. “特殊司書의 養成과 우리나라의 圖書館學 教育科程” 도서관. Vol. 33, No.4(1978. 5) p.36-42 *29
9. 정 영미, 현 규섭. “國立中央圖書館資料管理의 電算化研究” 圖書館學. 제 8 집 (1981) 서울 : 한국도서관학회, 1981. p.3-72.
10. 정 필모. “도서관학 4년제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서관. Vol.27, No.2 (1972. 2) p.9-11.
11. 정 필모. “研究圖書館의 藏書構成에 관한 考案.” 중앙대학교 논문집. Vol.11

33) Frarey, carlye J. “Developments in subject cataloging.” *Library Trends*. Vol.2, No.2 (October, 1953) p.220.

- (1966) 서울 : 중앙대학교, 1966. p.144-165.
12. 정 필모. "韓國의 圖書館教育 : 1972年度의 回顧와 反省" 도협월보. Vol.13, No.12(1972.12) p.13-15.
 1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 동협회, 1979. 67p.
 14. ALA.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Divisio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Section. Classification Committee, Classified catalog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6, No.3 (Summer, 1962) p.274-275.
 15. Chan, Lois Mai.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Hill, 1981. 397p.
 16. Chan, Lois Mai.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8. 347p.
 17. Croft, W.B. "A model of cluster searching based on classification." *Information System*. Vol.5, No.3 (1980) p.189-195.
 18. Cutter, C.A. "Library catalogues." In U.S. Bureau of Education. *Public libraries in the U.S. of America; their history, condition and management*, (U.S. Department of Interior, Bureau of Education Special Report, Part 1)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76. Chapter XXVII
 19. Cutter, C.A.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First published in 1876)
 20. Dahlberg, I. "Major developments in classificatio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6 (1976)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p.41-103.
 21. Frarey, C.J. "Developments in subject cataloging" *Library Trends*, Vol.2, No.2 (October, 1953) p.217-235.
 22. Fugmann, R. and Winter J.H. "Reverse retrieval: toward analogy inferences by mechanized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Vol.6, No.2(1979) p.85-91.
 23. Gjelsness, R.H. "The classified catalog vs. the dictionary catalog." *The Library Journal*. Vol.1, No.1 (January 1, 1931) p.18-21.
 24. Hans (Hanan) Wellisch. "Subject retrieval in the seventies: methods, problems, prospects." *Subject retrieval in the seventies; New directions: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symposium*. ed. by Hans (Hanan) Wellisch and Thomas D. Wilson. Westport: Greenwood, 1972. 179p.
 25. Hason, E.R. and Darly J.E. "catalogs and cataloging."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 ed. by Allen Kent and others. New York: Marcel Dekker, 1970. p.242-305.
 26. Hazen, M.H. "The closing of the classified catalog at Boston University."

-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18, No.3 (Summer, 1974) p.220-225.
27. Hilda, Steinweg. "Specificity in subject heading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23, No.1 (Winter, 1979) p.55-68.
28. Hunter, Eric J. *Cataloguing, a guidebook*. Hamden: Linnet Books, 1975. 184p.
29. Kennedy, R.F. *Classified catalog: a practical guide*. [South Africa?]: Balkema, 1966. 90p.
30. Lipetz, Ben-Ami. "Catalog use in a large research library." *Library Quarterly*. Vol.2, No.1 (January, 1972) p.129-139.
31. Mount, J.E. "Demise of a classified catalogue: victim of progres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23, No.4. (Fall, 1979) p.422-425.
32. Quigg, P. *Theory of cataloging: an examination guidebook*, 2nd ed. Rev. Hamden: Archon Books, 1968. 116p.
33. Rigby, M. "Standardization for classification in computerized documentation system." *classification research*, ed. by Atherton. Copenhagen: Munksgaard, 1965. p.524-539
34. Shera, J.H. and Egan, M.E. *The classified catalog: basic principles and practices*. Chicago: ALA, 1956. 130p.
35. Siew, Kee Yeh and Choo, Chang Soh. "Cataloging the multi-languag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Library, Singapore." *International cataloging*. Vol. 1, No.2 (April-June, 1972) p.7-8.
36. Slamecka, Vladimir. "The development of subject catalog in the U.S.S.R."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6, No.3 (Summer, 1962) p.257-261.
37. Stevenson, Gordon. "The Eppelsheimer subject catalog."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15, No.3 (Summer, 1971) p.309-328.

<부 록>

주제 목록 형태에 관한 설문

1. 귀하의 소속도서관(자료실, 정보실……포함)의 이름은? 예 : 국립중앙도서관
2. 귀하의 소속도서관이 구비하고 있는 목록에 모두 표시시오.
 - ① 분류목록(서가목록과 동일한 배열체제의 목록)()
 - ② 주제명목록(양서 및 동서)()
 - ③ 주제명목록(양서만)()
 - ④ 기타 주제 안내를 위하여 위의 두가지 이외의 목록체제를 취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
3. 귀하의 소속도서관의 주제명 목록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주제명표목표를 쓰고 계십니까?
 - ① 이재철 주제명 표목표()
 - ② Sears List of Subject Headings()
 - ③ L.C. Subject Headings()
 - ④ 기타()

주제명 표목표 이름은?()
4. 언제부터 주제명 목록을 시작하셨습니다습니까?
 - ① 1981년에 시작()
 - ② 1980년에 시작()
 - ③ 1975년~1979년 중에 시작()
 - ④ 1970년~1974년중에 시작()
 - ⑤ 1969년 이전에 시작()
5. 귀하의 소속도서관이 분류목록을 작성하다가 주제명 목록으로 바꾸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습니까? 해당란에 모두 표시시오.
 - ① 분류목록이 이용율이 낮아서()
 - ② 분류표의 체제에 결함이 있어서()
 - ③ 완전한 분류목록은 색인을 해 주어야 하므로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 ④ 분류목록은 현대의 민주주의 대중사회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 ⑤ 기타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술해 주십시오. ()
6. 귀하의 소속도서관이 주제명 목록을 작성하다가 중단했거나 분류목록으로 바꾸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란에 모두 ○표 하시오.
- ① 주제명 목록이 이용율이 낮아서()
- ② 적절한 주제명 표목표가 없어서()
- ③ 주제명을 주는 것은 분류기호를 주는 것과 동일한 량의 이중작업이므로()
- ④ 주제명을 잘못 매기면 주제명 목록을 내 주지 않는 것만 못하므로()
- ⑤ 기타의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
7. 귀하의 소속도서관이 분류목록을 구비하고 있다면 어떤 분류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KDC() ② DDC() ③ UDC() ④ L.C.()
- ⑤ 기타() 분류표 이름은?()
8. 귀하의 소속도서관이 분류목록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분류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독자들이 분류목록을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어떠한 안내를 하고 계십니까? 해당란에 모두 ○표하십시오.
- ① 분류목록의 색인을 해주고 있다. ()
- ② 분류목록의 색인을 앞으로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다. ()
- ③ 분류표의 류, 강, 등 대략의 분류 구분을 표로 만들어 제시한다.
- ④ 개별적인 혹은 단체적인 이용지도를 통하여 분류목록의 이용법을 지도한다. ()
9. 분류목록과 주제명목록에 대하여
- 귀하의 소속도서관이 택하고 있는 목록형식과는 다른 귀하 자신의 의견이 있으시면 이하 지면에 기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 Study on Classified Catalogs of Research or Special Libraries in Korea

Soyoung Yoo*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at first to find out a more suitable form of catalog to guide library users who need subject approach through a literature survey, secondly to see how and which catalog form is kept by Korean research or special libraries through an analysing questionnaires, and thirdly to evaluate these data and explore the ways to improve the function of classified catalog in Korean research or special librar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s that a classified catalog is more desirable form of catalog in research or special libraries in Korea because of the diversity of languages of the literatures needed by researchers,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librarians and the problems of subject heading lists. Above mentioned questionnaire survey shows that more than 70% of research or special libraries in Korea uses classified catalogs. However, among those libraries only 8% has the index of cassified catalog which is prerequisite for the catalog users. This survey also indicates that recently many libraries began or converted classified catalogs to subject catalogs.

The writer explains the beginnings or convertings of classified catalog

* Instructor, Ewha Womans University.

to subject catalog is due to the fact that many libraries do not have the index of a classified catalog which is badly needed by the library users.

Based on these findings, writer said that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present classified catalog, it should include it's index to guide the library us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classifying system of the subjects.

Through the entire paper, the writer has attempted to develop a point of argument by comparing a classified catalog with a subject catalog. Writer's point is not only a subject catalog using the particular language terms as a communication tool has problems in itself, but also the prevailing of this catalog form in North America is caused by their different situations from ours.